모든 것 관하여 그대로 놓으면 삼독 무너지고 그대로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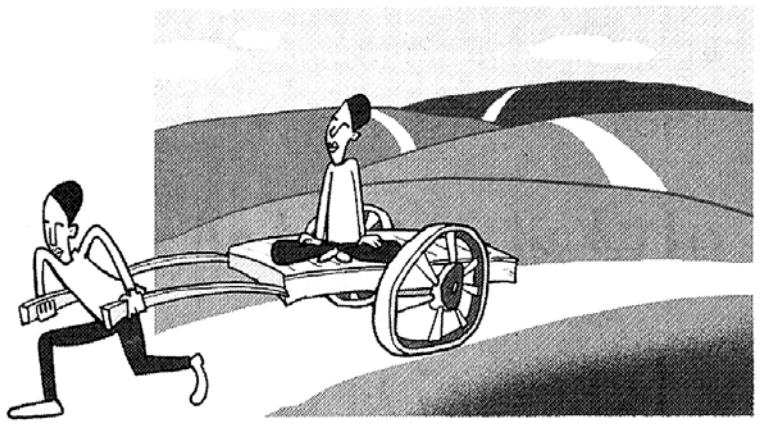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로 삼독이 되는 거죠.

삼독이 일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놓으시면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의 무명을 벗겨준다 하더라도 소 마음이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버리는 거죠. 나의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서 될까 모르겠네요. 허허허. 그래서 그걸 마쳐야죠. 그렇게 한다면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하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죽어요. 그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영혼이 내가 돼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깐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볼 때 불쌍하면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가서 소를 방망이로 머리를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게 되죠. 그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으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주고 모두 같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7: 감사합니다, 스님. 『한마음요전』에 보면 삼합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마부와 달구지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보아야 옳은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로 하여금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한 그 자체가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죽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부는 마음이요,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주인공,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입니다.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쳐야지, 마부는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다가 매사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가르치는 데도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마음 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지금 움죽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化)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냐,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냐는 거죠. 마부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거는 남의 뿌리와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죠.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질문자7: 아닙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 흔히 자주 쓰는 참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내 육신과 내 몸 속의 수많은 중생들이 공생 · 공용 · 공체하고 있으므로 내 마음을 제도해야 내 몸 속의 중생들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의 정수를 알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 지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 따라서 달구지가 안 가죠. 달구지를 바깥으로 치면 달구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진(耨盡)으로 통신이 돼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안을 치면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국가나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이 몸 세포 하나 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악한 인연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모두 같이 둘 아니게 도와줘

그렇게 통신이 되면, 모두 알고 있어요. 어떤 건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돼서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제도해서 자비스러운, 둘 아닌 도리로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달구지를 끌고 소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겁니다.

▲질문자8: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선원에 와서 설법을 듣고 가면 기쁘고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 한동안은 공부가 잘되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스님도 생각을 해보고 선원 분위기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원이나 내가 생활하는 장소나 다 같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저런 녹음기도 우리가 건전지를 갈아 끼워서 쓰기도 하고 또 전력을 빼서 쓰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마음 도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녹음기에 건전지를 끼워서 사용하다가 그 약이 다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오듯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아는 것 같아도 생활에 끄달려서 헤매고 살다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허허허. 그런 경우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져서 자동적으로 그냥 전력이 들어가게끔 될 때는, 그때는 안 와도 온 것이고 와도 안 온 것이고 그러니 두 자리가 아니 되죠. 일체가 전부 내 자리인 것이죠. 일체가 도량이구요.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주 와서 도반들끼리도 서로 공부하는 토론을 하면서 자리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꾸준히 법회에도 참석을 해야 할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다 배울 때까지는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가야 하고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질문자9: 마지막으로 인사를 여쭙니다. 〈도(道)〉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박복하여 이제야 스님을 정면으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의 발전소를 갖고 계시는 스님께서, 저는 한전의 발전소에 근무를 합니다.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제가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스님 마음의 발전소가 더 여러 사람에게 자꾸 지어지도록 더욱 건강하시기를 .

▲스님: 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보이는 물질의 발전소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발전소는 한계가 없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듯이 한계가 없는 거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와야 전력이 들어온 줄 알고 불이 나가야 전력이 나간 줄 알지,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보지 못한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어디든 멀다 하지도 않고 가깝다도 없이 전달이 되는 바로 우리의 각자 발전소입니다.

인제 요다음부터는 질문을 받아야지, 내가 설법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시게 해야겠어요.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삼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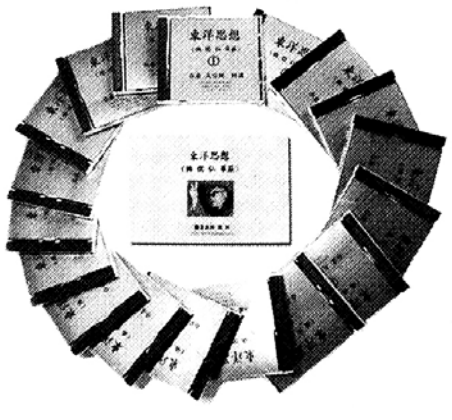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불교의식(범음 · 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 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